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본 양성
만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충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다윗복음 4:17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짓고 내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민국교회총연합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 2006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경삼 편집인: 노광원 편집: 양재웅



오늘은 맥추 감사주일 및 제5차 성찬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롬 7:25)**

오늘은 맥추 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지난 반 년 동안 지쳐주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살전 5:18). 세상적으로 형통한 삶이었기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은혜, 그 하나만으로 진심으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맥추절이나 수장절은 단순한 곡식에 대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가나안에 도착한 첫 해부터 이 절기들을 지키도록 명하였는데 이 절기는 단순히 땅의 열매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벗어나 가나안으로 옮겨진 삶 자체가 열매이며 그것을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죄악의 도성에서 은총의 땅으로 옮겨진 것을 열매로 간주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참 신자의 감사는 십자가에 있습니다(엢 2:16). 특히 1부 예배부터 5부 예배 시에 있는 성찬식을 통해서 보혈의 예수님을 만나기에 우리의 감사가 더욱 풍성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과 피를 기념하면서 주님을 향한 참 감사의 제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고전 15:57).

복음의 잔치!

2006년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말씀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깨달아 아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잔치가 열렸습니다. 지난 6월 29일(목) 장년 3부의 수련회가 은혜 중에 끝났으며, 이번 주 화요일(4일)에는 장년 2부와 소망부 수련회 등 앞으로 7월 한 달 동안 대부분의 교회 학교에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개최됩니다. 특히 이 일을 위해 준비하시는 각 교회 학교의 선생님들의 마음은 이미 뜨거워져 있습니다. 선생님 자신이 먼저 보혈의 은혜로 충만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기에 더욱 간절히 기도하며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골 4:2).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교회 학교 학생들 이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말씀으로 충만한 복음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이 모든 일에 앞장서서 섬기는 모든 종들이 오직 십자가만을 의지하도록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후 13:4).

깨어, 이 말씀을 들으라!(금요일회)

사도 바울의 고백 (고전 2:2)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의 성도들을 향하여 쓴 고백이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들 중에서 아무 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도시와 교회가 다 다니며 오직 한 가지만 알고 한 가지만 가르치기로 작정한 이 사람을 보라. 한 사람, 한 피조물을 사도 바울이 찬양하고 가르치고 또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음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어떻게 성경 신학자인 그가 자신있게 외치고 있던 말인가? 그의 생애에서 인간을 죽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신앙적으로 가장 옳다고 생각하고 결단을 내렸을 그때에 그에게는 심각한 질문이 있었다(행 9:1,2). 그는 그리스도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다.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교만을 책망하며 성경을 바르게 풀어서 예언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였던 자이다. 그에게는 예수가 메시아였다.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죽을 앞에서도 천사의 모습의 순교였다. 그리스도가 스데반을 지켜보실도 간증하였다. 그러나 바울 자신의 신학은 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고 그 종교를 없애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자신을 바쳤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미리 언급하셨던 것이다(요 16:1-3).

사울은 그리스도를 몰랐다(행 8:1). 그 당시의 은총의 자녀들인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였고 크게 애통해 하였다. 그러나 사울은 깨달음이 없었다(행 8:2,3). 이것이 사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삶이었다.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기를 원했다. 그의 발걸음은 신앙의 분명하고 목적이 있었다. 꿈이 있었다. 흐려져 가는 유대교를 바로잡기를 원하였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향하는 결의에 찬 여행 중이었다. 불의와 타협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 그에게 가장 큰 인생의 질문이 나오고 있었다(행 9:3,4). 자기의 이름을 부르셨다. 어떠한 음성이었는가? 다른 자들은 소리만 들었다. 그러나 사울에게는 분명하였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어찌할 줄 몰랐다. 하늘을 향하여 아니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다. “주여 부시옵나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은 종교인이었다. 이 종교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또 하나의 단이었다. 즉, 하나님은 종교요, 종교가 곧 하나님을 대신해서 쓰인 단어이다. 그러므로 이 존경받는 사울은 그의 종교가 변한 것이다. 완전한 종교였다. 그리스도의 몸 된 회개를 향하여 그는 분명하게 회심했다.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 이 십자가의 종교를 부르

짖는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아무 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고 한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즉,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육신이 되셨고 또 죽으셨다(딤후 1:5). 그리스도의 은총을 고백한다(딤후 1:16; 딤후 2:11).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었고 전파하였다. 그리스도는 불의한 자들을 위하여 의가 되신 것이다.

바울 자신이 가장 큰 죄를 지었던 신학자였다. 이제 그는 다른 표현을 사용하므로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다(갈 1:6-8).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계 줄게 하라. 하나님께 종계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니 믿는 자와 믿는 자에게 덕을 끼치는 삶은 아니었다. 또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다(엢 3:17-19).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를 강조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찬양함에 있어서 인간의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사용하고 있는 바울의 고백이다(고전 3:23). 완전히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이 그리스도는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임을 밝히 말하고 있다(딤후 3:16).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음과 깊음이 우리의 지식을 능가한다. 이것보다 더 높은 찬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과연 다른 무엇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참으로 거룩한 사랑,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외에 다른 것으로는 설명이 있을 수 없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간접적으로 증거하여 주는 사도 바울의 고백에 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의 증거일 것이다(마 19:17). “천한 이는 오직 한 분이니라” 그분 이 곧 하나님이다. 이 지구상에 있는 피조물 중 가장 고상하고 아름답고 고귀한 것이라 할 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에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을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아무리 높고 훌륭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무한한 간격이 있다. 오직, 하나님의 유일성, 통일성 안에서만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되심을 증명할 수가 있다(요 14:23). “우리” 곧 “하나님은 내 아버지”인 것이다.

DO YOU LIVE BY FAITH?

(5) When the king of Egypt was told that the people had fled, Pharaoh and his servants had a change of heart toward the people, and they said, "What is this we have done, that we have let Israel go from serving us?" (6) So he made his chariot ready and took his people with him; ... (14) "The LORD will fight for you while you keep silent." (Exodus 14:5-14)

The hand of God freed Israel. He opened the way of salvation and delivered them from sin, as He now delivers us from sin, "But God demonstrates His own love toward us, in that while we were yet sinners, Christ died for us" (Rom. 5:8). Israel's deliverance from Egypt typifies the gospel, their Passover speaks about the death of Christ, and the opening of the Red Sea illustrates His resurrection. Israel did nothing to merit salvation, and God did everything. They were delivered by the blood of the lamb, just as we are delivered by the blood of Jesus Christ, "Behold,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Jn. 1:29)!

The biblical story of Israel's emancipation has deep and great meaning concerning the significance of living by faith. God rescued them from the bondage of sin, and guided them in a pillar of cloud by day and a pillar of fire by night. He was guiding them to the Promised Land. They were traveling in the will of God. God was taking care of everything! All they had to do was follow with faith, but a problem came up. Pharaoh, king of Egypt, changed his mind about letting Israel go, "When the king of Egypt was told that the people had fled, Pharaoh and his servants had a change of heart toward the people, and they said, 'What is this we have done, that we have let Israel go from serving us?' So he made his chariot ready and took his people with him" (vv. 5&6). Pharaoh regretted his past decision, and took 600 select chariots and all the other chariots of Egypt with officers over all of them to chase after the sons of Israel. As God's chosen people, should they continue following in His will, given these dire circumstances?

Faced with this serious problem, the Israelites fell into a depression. As Pharaoh got closer and closer, they became very frightened and "cried out to the Lord" (v. 10). They said to Moses, "Is it because there were no graves in Egypt that you have taken us away to die in the wilderness? Why have you dealt with us in this way, bringing us out of Egypt? Is this not the word that we spoke to you in Egypt, saying, 'Leave us alone that we may serve the Egyptians?' For it would have been better for us to serve the Egyptians than to die in the wilderness" (vv. 11&12). Believers always cry out to God, but few in faith. The Israelites complained and blamed. They wanted to know why this and why that, and talked about the 'did not I tell you before' kind of stuff. These people, the ones who cried out to God for deliverance from slavery with the Egyptians, now cry out to God for enslavement by the Egyptians. Why did they change? Why did they speak with such bitter sarcasm? The reason why is because they changed their focus. They forgot God's promises. They did not really believe them.

Moses gave the Israelites direction, "Do not fear! Stand by and see

the salvation of the Lord which He will accomplish for you today; for the Egyptians whom you have seen today, you will never see them again forever. The Lord will fight for you while you keep silent" (vv. 13&14). He reminded them of several very important messages from God. The first one, fear not. God uses this phrase so often when He speaks to us. He told Abram, "Do not fear, Abram, I am a shield to you; your reward shall be very great" (Gn. 15:1). Do you believe it? Do you really believe it? God asks you not to fear because He is your protection. He wants you to deny yourself, take your cross, and follow Him without fear. He specifically says, "Do not fear, for I am with you; do not anxiously look about you, for I am your God. I will strengthen you, surely I will help you, surely I will uphold you with My righteous right hand" (Isa. 41:10). Are you living with this kind of faith?

Moses reminded the Israelites to stand still in faith. God did not want His people to turn around, or flee, or tremble about. He wanted them to stand in front of the enemy and watch His mighty works. God says, "Cease striving and know that I am God; I will be exalted among the nations, I will be exalted in the earth" (Ps. 46:10). He wanted the Israelites to stand still, so that they could see His salvation through eyes of faith. 2 Corinthians 4:18 reminds us, "while we look not at the things which are seen, but at the things which are not seen; for the things which are seen are temporal, but the things which are not seen are eternal." Do you believe it? Do you really believe God's word? If your focus changes, you will not believe, but instead will worry and move about in the wrong direction. You cannot stand firm and see God's handiwork without faith. The Lord will fight for you while you keep silent in faith.

God told Moses to tell the sons of Israel, "go forward" (v. 15). We cannot move forward until we stand still. When we trust in God, we can move ahead. Hebrews 11:29 says, "By faith they passed through the Red Sea as though they were passing through dry land; and the Egyptians, when they attempted it, were drowned." The cloud led the Israelites and confused the Egyptians, "The angel of God, who had been going before the camp of Israel, moved and went behind them; and the pillar of cloud moved from before them and stood behind them. So it came between the camp of Egypt and the camp of Israel; and there was the cloud along with the darkness, yet it gave light at night. Thus the one did not come near the other all night" (vv. 19&20). When Moses lifted up his rod, the wind obeyed and the waters parted. Israel crossed the Red Sea on dry ground.

My dear friend, do you feel trapped in a dangerous place right now? Where is your faith? Please fear not, stand still, and by faith see the salvation of Jesus Christ. When you do this, you can move forward. 🙏

다을 주일 설교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①혹이 백성의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하매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노고 하고

^②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③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기 14:5~14)



김성완 목사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켰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여셨고 죄악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롬 5:8).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복음을 예표합니다.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며, 홍해가 열리는 사건은 주님의 부활을 설명해 줍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요 1:29)!

출애굽한 이스라엘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에 관한 성경 기사에는 믿음으로 사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의미 심장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죄악의 사슬에서 구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것을 돌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을 놓아 보낸 일에 대해 마음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혹이 백성의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하매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노고 하고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5:6절). 바로는 자신이 내린 결정에 대해 후회하면서 600승의 특별 병거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이끌고 장관들과 함께 이스라엘 자손을 추격했습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할까요?

진실로 믿음이 있는가?

이 심각한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좌절하였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점점 더 가까워지자 그들은 공포에 떨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10:23). 그들은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자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트기를 우리를 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도랴"(11:12절). 신자들은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서 믿음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불행하며 모세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그들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이유를 캐물으며 내가 전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는 식으로 반박했습니다.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들이 이제 와서 애굽의 종살이를 자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변했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심한 야유를 퍼붓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초점이 바뀐 탓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진정으로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

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13,14절). 모세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우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지금도 수없이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람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창 15:1).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습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친히 우리의 보호자 되시므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특별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사 41:10). 여러분은 이러한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인내하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믿음 가운데 잠잠히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방향을 바꾸거나, 도망치거나, 두려워 떠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대적 앞에 서서 자신이 행하는 놀라운 역사를 목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찌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놀임을 받으리라"(시 46:10).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서서 믿음의 눈으로 자신이 행하는 구원을 보기 원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18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러분은 이것을 믿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만약 이 초점이 바뀐다면 여러분은 믿음에서 떠나 근심하며 잘못된 방향으로 이리 저리 헤매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확고히 서서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잠잠히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라

하나님께서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앞으로 나가라"(45:20)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잠잠히 있기 전까지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비로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29는 말합니다. "믿음으로 저가야 홍해를 육지 같이 건넌노라 애굽 사람들을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민족을 안전하게 인도했지만, 애굽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함대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밝아 광명하므로 밤새도록 저 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19,20절).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올리자 바람이 순종하고 바닷물이 나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방이 막혀 있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수요 1부 예배 메시지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요 13:21~27)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기에 우리는 진실로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는 순간마다 죄를 범한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요 13:1). 이 은총을 입은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던 제자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3년간이나 예수님 곁에서 말씀과 이적을 보았음에도 그들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의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사단은 거짓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도록 그의 마음을 조종하기 시작하였다(요 13:2).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요 13:21).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 가운데 배신자가 있다는 말이다. 예수님을 단순히 따르던 무리들이 아니라 3년간에 동거 동락했던 사도들 가운데 스승이 있다는 사실을 충격받았다. 가장 가까운 곳에 원수가 있다(막 10:36). 우리의 원수는 멀리 있지 않다. “형제야 형제들, 아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 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막 13:12)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자. 죽을 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큰소리쳤던 베드로와 제자들(막 14:31)은 어떠했는가? 그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부인하며 떠났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은가? 우리도 세상의 썩어질 정욕(tlust)만을 좇으며 예수님을 떠나고 있지 않은가?

예수님은 앞으로 제자들이 행할 모든 일들을 알고 계셨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며 사랑의 도를 가르쳐 주셨다(요 13:4,5).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후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행하여 주고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행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복을 보았노라”(요 13:12-15). 이 분이 있는가? 오히려 이 분이 바로 주신 예수님을 팔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욕심, 갈등, 불안, 근심으로 가득찬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요 14:15). 제자들, 특히 거짓 유다도 이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럼에도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다.

왜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였는가?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로마 압제 하에 있는 자신의 민족을 행상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자들은 생각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 때”에 대해서 질문하였다(막 24:3).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주지 않으셨다. 제자들은 불안하였고, 거짓 유다도 불안해 하였다. 특히 “오직 인자는 미리 둘 곳 없다”(막 8:20)는 말씀을 들었을 때 거짓 유다는 더욱 혼란스러웠을 것이다. 또한 베드로, 야고보, 요

한을 각별히 대하셨던 모숨(마 17:1)으로 인해 유다의 마음에는 질투심도 있었다. 결정적으로 예루살렘에 임성한신 예수님께서 당시의 지도자들과 화목하지 못한 모습(마 21:12,15)으로 인해서 그의 기대감을 완전히 무너졌다. 당대의 권력을 가진 자들과 타협 없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베드로의 간곡한 요청에도 오히려 베드로를 꾸짖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그의 발걸음은 빨라졌다.

마침내 거짓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같은 거짓 유다의 판단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군을 떠올리게 한다. 이들은 각 지파에서 영적인 면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들의 정탐 보고는 가장 정확한 분석과 분명한 사실이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민 13:31). 정탐 보고를 들은 이들은 밤새도록 울부짖으며 기도한다. 나름대로 기도하며 내린 이들의 합리적인 결정은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민 14:1-4). 이들의 중매는 어땠는가? 그토록 소망하였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가장 올바른 결정을 했던 거짓 유다는 온 삼십에 예수님을 팔았다(막 26:15). 그러나 그의 중매도 비참했다(마 27:5).

우리는 거짓 유다보다 못한 사람들이다. 매 순간 우리는 예수님에게 실망만 안겨 주는 어리석은 죄인들이다(막 14:34-37).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총의 말씀을 주셨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마 16:24). 우리는 진실으로 회개하며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자기 십자가를 지며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한다. 요한처럼 끝까지 예수님 곁에 남아 있어야 한다(요 19:26,27). 따라서 우리는 겸손으로 위장한 교만을 버리고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 의지해야 한다. 지금 나의 위치가 나의 신앙을 보존하지 않는다. 우리가 다 되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시험에 빠져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고전 10:12,13).

나는 승리할 수 없지만, 내가 주님의 것이 될 때 승리할 수 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다. 예수님은 우리를 간절히 부르고 계신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은총 안으로 들어가지 않을 때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지금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여전히 나의 생각, 나의 교만을 주장하고 있지 않은가? 말씀으로 돌아와!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그날에 믿음만이 남아 있기 바란다. “셋째마레 동산까지, 십만 하실 자리까지.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리라”(찬 360장). 우리의 믿음을 불조서, 주님만을 찾게 하소서. 이 땅에서 나의 삶이 주님으로 인해서 가장 귀한 삶이 되게 하소서. 은총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아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소년부

정승규(장로, 소년부장)

모든 교회 학교가 마찬가지로 소년부 교사들의 사랑받은 남다른입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전하는 천국 일꾼을 양성한다는 기본 목표가 있기에 더욱더 선생님들의 마음은 뜨겁습니다. 따라서 소년부의 모든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다니엘(단 1:3~16)이나 다윗(삼상 16:11)처럼 어려서부터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데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소년부는 매 주일 오전 10시 30분에 제1교육관 507호에서 모여 주님을 예배하며 복음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소년부 학생들은 초등학교 5·6학년으로서, 어린이들이 청 소년부로 넘어가는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급격한 변화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켜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록 소년부 학생들이 예수님과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지라도 믿음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단순한 주입식 교육보다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찬송을 바탕으로 기도하는 어린이가 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마음속에 빠져부터 자리하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말씀을 통한 은혜를 지속

적으로 공급하는데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소년부 학생들이 아직 어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생각이 확실하고 표현도 당당합니다. 소위 자기만의 세계가 있습니다. 어른들에게 말 못할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성 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도 색다른 세계를 경험하고 싶어합니다. 통째심으로 볼 때 소년부에서 중등부로 진학하면서 학생들이 교회를 떠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위한 기도가 절실합니다.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전하는 천국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가정에서부터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함께 이들을 복음으로 양육할 때 학생들을 미혹하는 악한 영이 물러갈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고전 1:18).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신 6:5)라는 말씀대로 소년부 학생들이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학생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이 말씀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돕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성경 중심의 교육을 통해서 소년부 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를 위해서 이들을 강제적으로 이끌기보다는 성령께서 이들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년 시절의 예수님께서 청소년으로서 자기의 할 일과 존재 의미에 대해 분명한 자아 정체감을 형성했던 것처럼(눅 2:41~49) 영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하도록 선생님들은 실제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눅 2:52).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간절한 기도를 모든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복음의 씨앗이 아름다운 열매로

마을과 학교, 유치원, 병원, 대학교 등에서 노방 전도, 축조 전도, 1:1 전도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먼 거리의 비행과 이동으로 육신이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지하여 구원은 오직 한 길,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길은 없으며,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 주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심과 사흘 만에 부활하시며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구나 구원을 받게 된다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학교 사역에서는 선생님들이 환대하며 복음을 전하도록 도와 주었으며 노천간이역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을 보며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광경 같이 전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기자가 들어오는 순간까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주님만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신뢰하지 못 하였음을 회개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거부당하여 돌아서기도 했고 많은 학생들을 보며 찾아갔던 학교에서 거부당하여 돌아서며 우리의 교만과 겸손을 깨달았습니다.

병원에서 만났던 죽음에 앞둔 환자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는 것과 "천국에서 만나자"고 했을 때 힘겹게 제 손을 잡고 고맙다며 제 얼굴을 쓰다듬었을 때 돌아서 기도하러 많이도 울었습니다.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온 땅에 퍼져 아름답게 꽃 피우고 열매를 맺어 그곳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세워지기를 확신하며 돌아왔습니다. 이 최인을 십자가를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신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황 창(홍사, 4교구)

나의 죄 다 씻은 기쁜 날!

"기쁜 날 기쁜 날 주나의 죄 다 씻은 날"을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나의 죄 다 씻은 날"(찬 209장), 저희들은 한 마음으로 이 찬송을 부르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부족한 것투성이였지만 그것이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바로 '나'였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앞서 가시도록 순종할 때 주님은 역사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담대히 그들의 손을 잡아 제압하였습니다. 병든 아들을 놓고 슬퍼하는 한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께 병 고침을 위한 기도를 할 때 뜨거운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비스안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는 '다들 저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한 가정에서 복음을 전할 때가 기억납니다. 그곳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 가정의 둘째 딸이 신생아였습니다. 우리는 그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주었고, 그녀도 기꺼히 자신이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동안 비록 외적인 환경은 좋지 못했지만 기쁜 날이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에 기쁜 날이었습니다. 이 죄인을 통해서 죄 사함의 복음을 받은 또 다른 죄인이 기뻐하니 역시 기쁜 날이었습니다.

최왕숙(권사, 17교구)

교만을 깨뜨리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7교구 6지역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며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로 할 수 없을 것 같았지만 사역 중에 만난 영혼들에게 담대히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비록 사단의 방해가 있었지만 성령님 만의 의지고 나아가갈 때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김근 집사)

◆선교를 떠나기 전까지 예기치 않은 일로 무척 힘들었습니다. 선교를 떠나기 바로 전 날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최인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시려는 예수님은 당신의 계획대로 모든 일을 진행 하셨습니다. 특별히 선교지의 영혼들을 통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뭔가 내 능력으로 이루려 했던 교만한 마음을 모두 내려 놓았습니다. (안도영 집사)

◆불쌍한 영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 안다지만 올바른 믿음이 구원의 길과 멀어진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떠난 저희들은 오히려 우리들 자신이 얼마나 깊은 교만과 자만에 빠져 살았는지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사역에서 나의 영혼이 살아났음을 감사합니다. 귀한 사역을 통하여 내 자신의 교만을 버리고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며, 오로지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의 사명이고,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윤용현 안수집사)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니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저의 결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변성우 권사)

◆선교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의 과정임을 선교지에 가서야 깨달았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전하기 위해 저희들을 보내어 주셨음을 믿고 사역지에서 매일 매일 주님만을 의지하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복음을 외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정상화 권사)

◆'나의 교만한함을 버리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오로지 십자가 복음만 전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로 죄악과 우상이 가득한 선교지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의 경찰 검문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담대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조종택 안수집사, 팀장)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기 간	팀	팀 장
7월 4일(화) ~ 7월 11일(화)	대학부 30팀	강민수
7월 5일(수) ~ 7월 13일(목)	대학부 31팀	장승규
7월 7일(금) ~ 7월 14일(금)	대학부 28팀	권오준
7월 7일(금) ~ 7월 14일(금)	대학부 25팀	문연식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기 간	팀	팀 장
6월 26(화) ~ 7월 4일(화)	4교구 6지역	문효식
6월 26(화) ~ 7월 4일(화)	5교구 6지역	전종일
6월 27(화) ~ 7월 5일(수)	4교구 10지역	이흥우
6월 27(화) ~ 7월 6일(목)	10교구 1지역	김현배
6월 28(수) ~ 7월 8일(목)	6교구 8지역	안상직
6월 29(목) ~ 7월 7일(금)	2교구 7지역	조홍연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기 간	팀	팀 장
6월 19(월) ~ 6월 27일(화)	4교구 13지역	오순도
6월 19(월) ~ 6월 27일(화)	8교구 5지역	한운배
6월 19(월) ~ 6월 27일(화)	8교구 6지역	박준호
6월 19(월) ~ 6월 27일(화)	9교구 1지역	김희찬
6월 19(월) ~ 6월 27일(화)	9교구 6지역	오재일
6월 19(월) ~ 6월 27일(화)	13교구 1지역	권영주
6월 19(월) ~ 6월 27일(화)	16교구 3지역	윤성철
6월 19(월) ~ 6월 28일(수)	장년1부 1팀	박경섭
6월 19(월) ~ 6월 29일(목)	2교구 5지역	정운환
6월 20(화) ~ 6월 27일(화)	6교구 1지역	박광식
6월 20(화) ~ 6월 28일(수)	11교구 2지역	김철환
6월 21(수) ~ 6월 28일(수)	10교구 8지역	노태경
6월 21(수) ~ 6월 30일(금)	7교구 7지역	이인광



회개의 은혜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는 일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자기 자신이었다는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았다.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하지만 결국 나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하며 예수님은 단지 나를 드러내는 수단이 되었음을 회개하였다. 감사하게도 주님은 이런 나를 그대로 죄 가운데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 결국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며 다시 그를 찾아가 만나 주셔서 거듭나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기까지 인내하신 예수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예수님 앞에서 내 의지와 생각을 내세우면서 주님을 따라가려 했던 어리석은 모습을 회개하며 내 안에 나를 비우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도록 말씀을 부어 주셨다.

지금의 죄된 모습으로는, 이렇게 낙하고 온통 나 자신만을 내세우는 모습으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지만 베드로에게 허락하신 회개의 은혜를 나에게도 허락하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를 믿으신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지금까지 손뼉으로 모시고 내가 내 안의 주인이 되어 있었던 지금까지의 모습을 회개하고, 나를 향하고 있던 시선을 돌려 주님께 향하고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기를 간절히 원한다. 나의 죄를 도말하시고 나를 피 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뻐하며, 언제나 동일하고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여 나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한다.

(이혜란(대학부))

나 먼저 "회개"

말씀을 들으면서 먼저 나의 마음을 친 것은 베드로를 돌이켜 보신 주님이었습니다. 고난받으러 가시는 중에도 자신의 믿음에 자신감을 가졌고, 그 자신감 때문에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를 생각하신 주님. 베드로에게 연약함을 깨닫게 하심으로 참된 회개를 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신 주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또한 나를 돌이켜 보고 계심을 생각합니다. 나의 죄의 연약함을 보시는 예수님. '내가 스스로 믿을 있다' 하며 내 믿음으로 나가기 할 때, 나는 이미 주님의 사랑에서 멀어져 있고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나의 자존심이,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깨어지길 원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성의 지략으로 풍취된 내가 아니라 그것들이 버려지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의 축복을 받다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내 자신이 먼저 회개하길 원합니다. 나의 육신은 연약하고 나의 본성은 죄인이기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고 자존심을 세우려 하고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기 원하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뜻과 의지, 자신감으로 가득찬 베드로를 회개하게 하시고 참된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주님의 종인으로 사용하신 주님. 내 영혼도 주님께 회개하게 하시고 내 마음이 아닌 주님의 성실하심으로 주시는 은혜를 깨닫는 심령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할 때, 죄의 벽이 깨뜨려지고 주님의 사랑의 교제로 내 영혼이 즐거워하며 거룩한 성을 향해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최윤옥(청년 1부)

예수님의 따림: 베드로

베드로는 자신을 믿고 있었다. 자신에게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말았던 것처럼, 나도 그렇지는 않았을까? 내 자신을 믿고 교만하여 나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귀마가 듣지 않았던 건 아닐까?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 되었지만 아직도



나는 내 뜻대로 살고 있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좇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지만 그것도 순간일 뿐 자꾸만 주님을 잊게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처럼 나는 그렇게 살고 싶고, 그야말로 한다.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의 은혜로 변화하였다. 과거의 베드로는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 몰랐고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았지만 마침내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 나는 자존심이 강하다. 그렇지만 이 자존심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다. 나 자신의 힘으로 살아 가려 했던 내게

예수님은 따림하게 채찍질해 주셨다.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고 변한 것처럼 이전 나도 예수님이 오시지 못하게 막는 방패들을 치워 버려야 한다. 주님이 내 마음 속에 곧 들어오셔서, 나와 동거하시며, 나의 새 생명이 되시도록.

조수민(중년 3부)

저는 진실로 죄인입니다!

온 나라가 축구로 소란스러웠지만 예수님은 죄로 인해 소란스러운 나의 심령을 말씀의 은혜로 채우셨다. '베드로의 회개' 나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나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었다. 베드로는 나처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자신이 다른 제자들보다 우위에 있다고 믿었고, 모두 예수님을 버리는 일이 있을지라도 자신은 결코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 도망갔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마침내 새벽 닭이 울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고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 것 없는 존재인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크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그렇다.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나날마다 주의 일을 감당한다고 했지만 베드로처럼 여전히 자기가 깨어지지 않은 불완전한 상태인 나의 모습이 베드로였다. 그러나 고난 중에서도 베드로를 바라보고 결국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드신 예수님께서 나에게도 기회를 주셨다. 청지기 훈련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저는 진실로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도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온전히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탁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 자신은 할 수 없 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 끝날 전 천국에 이르게 하옵소서." 아멘.

김윤호(집사, 9교구)

나는 베드로!

'베드로의 회개' 라는 말씀을 들으며 제가 바로 베드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따르다고 자부하며 오랜 세월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에게도 지금은 나를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을 따르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나를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본성이 나를 사랑하고 내 배를 위해 사는 것인데 그것은 죽음과 같이 어려웠습니다.

다베라 바닷가! 베드로의 완약함을 꾸짖으시기보다 돌이켜 보신 예수님이 저를 돌이켜 보시며 지난 날에 주님을 부인하고 살았던 삶을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날 위해 넘어지지 않게 붙들리며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제 삶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시며 길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2차 청지기 훈련으로 '베드로의 회개'의 생명의 양식을 먹으며 다시 한 번 주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의 이름 다른 덕을 선전하기 위한 주님의 백성인 것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한연숙(집사, 14교구)

교회 탐방 고등부(고3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신앙과 학업! 예수님을 믿는 학생들에게 가장 큰 고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대학 입시라는 큰課題를 바로 앞에 놓고 살고 있는 중학의 고3 학생들의 모습은 어떠할까? 그들은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있을까? 고3 학생들의 마음이 담긴 질문과 고백을 들어 봅니다.

고3이 되어서

고3이 되면서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힘든 일도 많다고 보니 저 혼자 은밀한 기도를 많이 하게 돼요. 지난 해까지 고등부에서 임원을 하며 교회에서 건강한 직책이지만 학교에서는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며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지요. 이런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주님께 진실로 매일 매일 회개하고 있었어요. 더욱 말씀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백진수)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개인적인 고민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주일날 고등부에 와서 말씀을 듣고 배워서 제 안에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이 생기기 되었어요. (김예스터)

학교에서 기기가 늘어다 보니 아침에 눈장을 자게 되고 말씀 묵상을 못할 때가 많아지면서 신앙적으로 많이 침체되었는데 방과 후 근처 학교 학생들과 같이 하는 기도 모임을 하게 된 뒤로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사무열)

고3 बन?

우리 교회 고3들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에 매일 수밖에 없는 그들의 환경 때문에 자신들 뿐만 아니라 지켜보는 저의들도 무척이나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복음 안에서 서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고3들이 있어 저의들도 더욱 간절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창수 목사, 지도)

저는 올해 고3 반을 처음 맡았어요. 공부에 지친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 안타깝지만 주일에 고등부 집회부터 시작해 5부 예배까지 참석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쁘게 웃어요.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같이 기도하는 이 시간이 정말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고3들이 지금 이 시간이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우리 없이 말쑥한 곳에서 기도하여 최선을 다하자! (김영희 집사, 교사)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는 주님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고요. 저는 지금도 공부의 목적과 목표를 찾고 있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무엇을 하든 주님과 동행을 하면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이예요. (김예스터)

저는 작년까지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성적을 올렸어요. 그런데 고3이 되어서 부모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내가 무엇을 하든 그 안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목적이 바뀌게 되었고 그 뒤로는 성취에 연연하지 않게 되었어요. (백진수)

나에게 힘이 되어 준 말씀과 찬송

갈라디아서 2:20 말씀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하는구나 이제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구나." 이 말씀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인가 생각하게 되었고 회개하게 되었어요. (이사무열)

아고소서 1:2~4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있을 때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주님께 조금 같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김예스터)

히브리서 3:17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씀이 많은 위로가 되었고 제가 많은 시련을 겪을 때 감사하지 못한 때가 많았는데 세상에 아무 것도 없어도 아박군 선지자처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백진수)

찬송가 4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방황하고 있을 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저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김예스터)

내가 만난 예수님은?

아무 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의지할 수 있는 분입니다. (김예스터)

목 매어 부를 수 있는 아버지예요. 제가 자라오면서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제가 아버지께 부를 수 있는 그분이 갹신 것이 정말 감사했고, 또 그러한 가운데서도 분명한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세요. (김예스터)

공의의 주님이요. 주님은 사랑하고 품어 주시는 분이라는 생각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어요. 그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여 힘을 내게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사무열)

늘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좋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요 15:15). 늘 제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제게 주님의 뜻을 알게 하세요. (백진수)

예수님께서 자신과 동행하신다는 사실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고3 학생들은 고백하였습니다. 특히 자신을 걱정하는 부모님들을 오히려 걱정하는 이들의 믿음속에는 십자가의 온종이 생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십자가의 능력이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이들은 대항보다 더 소중하고 반드시 들어가야 할 천국을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대학 입시를 앞둔 고3 학생들과 그의 가족들이 학업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편집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



찬 231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세상을 따라 늘 바쁘게 살다가 그러한 마음에 한계를 느낄 때면 피아노 앞에 앉는다. 혼자 찬송을 부르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마음을 내려 놓게 하시고 나를 광장에서 기쁘게 만나 주신다. 찬송을 통해 내 상한 심령에 위로를 주시고 가던 길을 포기하고 싶어 절망 할 때면 다시 나와 내 길을 가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낀다. '주가 맡긴 역사'를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달랠 때 요단강을 건너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뵈오라' 때로는 주님이 내게 맡긴 신 일들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천국을 살아가는 버거움을 덜어내는 도피처로 여길 때도 있다. 그러나 광장에서 부르는 이 찬송은 세상 모양과 욕심을 부리려는 마음에 재물을 걸여 주고 하나님과 천국을 소유한 자의 풍족함을 생각나게 한다.

"주가 내게 맡긴 역사" 무엇보다도 바랄 수 없는 한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일, 주님의 도구로 쓰이도록 준비하는 일, 나를 어떻게 쓰실지 알지 못하지만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일, 나의 이기심을 위해 주님을 놓치지 않는 일, 십자가에서 주님이 그렇게 하였던 것처럼 나를 부인하는 일! 세상이 원하는 더 강하고, 더 유명하고, 더 큰 것들을 취하지 않기를 원한다. 주님이 내게 맡기신 그 일들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할 수 있기를 원한다. 세상이 인정하는 똑같은 기준으로 생각하고, 결론하고, 소유하지 않기를 원한다.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서 서 뵈오라'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으로 보아 알겠네' 내게 맡긴 신 사역을 힘을 다해 마치고 나를 부르신 그 날 내가 기쁨으로 주님의 얼굴을 맞이할 기쁨이 있다.

한은(주심사, 임마누엘 전양대)

♡ 새 · 가 · 족 · 을 · 환 · 영 · 합 · 니 · 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2012	방성조	2	한진2부	2026	손준성	19	대학부 김진영(영)
2013	안순미	2	한진2부	2027	박정주	1	
2014	이강민	19	한진1부 김창영(영)	2028	배준진	16	한진1부 배준영(16)
2015	김정미	4	한진1부 김순애(영)	2029	김정현	12	한진1부
2016	채 진	14	한진1부	2030	고지영	5	한진2부 오규원(영)
2017	김영구	1	교역자	2031	신재관	5	한진2부 김호준(영)
2018	김정숙	1	한진2부	2032	박나연	19	한진1부 박경남(11)
2019	김희선	6	고등부 이진규(영)	2033	김정현	19	대학부 조현국(19)
2020	김미경	8	한진1부 김복순(영)	2034	한수연	11	한진2부 이복희(11)
2021	박신애	7	한진2부 심금현(12)	2035	민혜니	10	한진2부 김성현(17)
2022	김민선	2	한진1부 정종현(17)	2036	김정현	19	대학부 이승아(11)
2023	박보서	19	한진1부 김문선(17)	2037	오영진	19	한진1부 황지희(영)
2024	조광민	16	한진1부	2038	김정기	11	한진1부
2025	최희정	16	한진2부				

* 올원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

